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김 영 하*

•요 약•

본 연구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에 기반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민 정체성은 법적 시민권을 넘어 공동체 소속감, 공공선 실현, 사회 참여와 책임 수행을 통합한 능동적 정체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행 통일교육은 북한 이해와 통일 필요성에 집중되어 참여·비판·실천 요소가 부족하며, 그 목표 또한 국가 중심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 정체성의 핵심 속성인 행위 규정성·다양성·변화성에 기반하여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습자가 통일문제를 개인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수행하는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을 국가와 민족 통합의 수단이 아닌 시민적 통합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학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성에 기반한 교육적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시민 정체성, 시민성, 민주시민, 통합적 시민성, 통일교육

I. 서론

본 연구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¹⁾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통일교육의 효

*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kyhlks@knu.ac.kr

1) 본 연구에서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과 ‘시민성(citizenship)’을 상호 보완 개념으로 사용한다. 시민성은 법적·제도적 지위를, 시민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과 가치의 내면화를 강조하지만, 실제 시민적 주체 형성에서는 두 요소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스미스(A. D. Smith)의 국가 정체성 구성 논의에 기초한다. 그는 국가 정체성이 공유된 역사, 상징, 가치, 제도 등과 개인의 귀속 의식이 통합된 구조라고 보았는데, 이는 시민성의 제도적 기반과 시민 정체성의 인식적 기반이 함께 작동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개념을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Smith, A. D., *National Identity*, Reno & Las Vegas: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울성을 위해 어떠한 시민 정체성의 구조로 재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이 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 시민으로서의 주체적 정체성 결여에서 먼저 비롯된 구조적 요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통일문제는 일상적 담론에서 점차 주변화되고 있다. 최근 통일 관련 의식조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²⁾ 이는 남북한 관계의 경색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이 여전히 국가 주도적이고 전달 중심적 성격과 구조에 경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이해하거나 실천으로 연결하기 어렵다.³⁾

기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민족공동체에 기반한 의식의 함양 및 통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북한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 및 참여의 경험을 강화하는 내적 동기가 충분히 촉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내용 구성이나 교수 방법의 개선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⁴⁾

통일의 주체가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있게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시민 정체성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⁵⁾ 오늘날 시민 정체성은 단순한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시민 정체성은 공공선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합한 행위적 정체성으로서 통일교육의 핵심 이론 틀이 될 수 있다.⁶⁾

나아가 시민 정체성 기반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주체가 통일문제에 대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며, 참여적·실천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2)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4, pp.41-45.;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24, pp.30-34.

3) 이경희,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동북아연구』, 26(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1, pp.44-46.

4) 김병연·조정아,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통일교육연구』, 23(1), 통일교육학회, 2019, pp. 12-13.

5) 백승대·안태준,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4(1), 열린교육학회, 2016, pp. 39-40, 54-55.; 박형빈, “통일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제고: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21(2), 한국통일교육학회, 2024, pp.46-50.

6) 박보람, “주체적 시민성을 학습하는 시민교육,” 『초등도덕교육』, 7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pp.239-244.; 이종렬, “‘정체성’의 정치와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41(2), 한국시민교육학회, 2009, pp.170-171.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⁷⁾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육을 국가와 민족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 정체성 인식을 토대로 한 시민적 공존과 평화적 협력을 학습하는 공동체적 학습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⁸⁾

특히 본 연구는 통일시대의 참여적·비판적·포용적 시민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민성(integrative civic identity)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웨스트하이머(J. Westheimer)와 카네(J. Kahne), 뱅크스(J. A. Banks), 하버마스(J. Habermas), 히터(D. Heater)의 논의⁹⁾를 토대로 한 것으로, 통일교육의 이론적 범위를 민주적 시민사회의 학습 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정체성은 통일교육의 이론적 재구조화를 위한 분석 틀로서 어떻게 개념화를 비롯해 논의될 수 있는가? 둘째, 시민 정체성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시민 정체성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며, 이를 학습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제도적 원리(민주성,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로 구현할 수 있는가?

이처럼 본 연구는 시민 정체성을 통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핵심 분석 틀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의 진단 및 시민 정체성 기반 교육원리와 학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시민 정체성의 개념과 이론적 속성을 정리하고, 이를 통일교육의 설계 원리로 채택한다. 분석의 초점은 시민 정체성의 세 가지 속성(행위 규정성, 다양성 및 변화성)을 통일교육의 체계, 즉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응시켜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을 국가와 민족 중심의 통합교육에서 시민 중심의 평화공존 교육으로 전환하는 이론적·실천적 방향을 모색한다.

7) 이한진과 박형빈은 각각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를 통해 시민적 가치의 내면화와 평화공존 학습을 강조하였다. 이한진, “건전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6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23, pp.197-232.; 박형빈, 앞의 논문, pp.38-43.

8) 오덕열·강순원,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국제이해교육연구』, 16(1), 2021, pp.33-65.

9) Westheimer, J. & Kahne, J.,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004, pp.240-245.; Banks, J. A.(b),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2008, pp. 129-139.; Habermas, J.,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pp.118-127.; Heater, D.,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New York: Longman, 1990, pp.314-345.

II. 왜 시민 정체성인가?

1. 시민 정체성의 개념

1) 시민(citizen)의 등장과 변화

시민(citizen) 개념은 고대 폴리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사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구성 원리의 핵심으로 기능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을 공동체의 덕성(virtue)을 실천하며 공공선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¹⁰⁾ 근대 시민사회에 이르러 시민은 자연권을 보유한 개인이자 정치참여의 주체가 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권리와 공화주의적 책임¹¹⁾의 조화를 통해 국가 구성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한편, 현대의 시민 개념은 다문화·세계화·정보화 등 중층·복합적 변화 속에서 더욱 확장되었다. 시민은 법적 지위뿐 아니라 공동체 가치의 내면화, 사회적 관계망 속 참여, 타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존재로 이해되며, 이러한 이해는 시민 정체성을 정태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하게 한다.¹²⁾

따라서 시민 개념의 역사적 전개는 시민성(citizenship)을 제도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시민성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시민 정체성은 그와 같은 틀이 개인의 인식·가치·행위 속에서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기준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 논의될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정체성의 개념과 내적 속성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자기 이해이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선택·행위가 통합된 구조로서, 심리적·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에릭슨(E. H. Erikson)은 정체성을 자아와 사회 환경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통합적 구조로 규정하였다.¹³⁾ 그리고 테일러(Charles Taylor)는 근대사회에서 정체성이 타인과 사회의 인정 관

10) Aristotle, *Politics*, trans. H. Rackh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oeb Classical Library), 1932, 천병희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숲, 2017, pp.20-22, 56-60.

11) Hamilton, A., Madison, J., & Jay, J., *The Federalist Papers*, ed. I. Kramnick, New York: Penguin Classics, 1987 [1788], esp. Nos. 10(Madison), 51(Madison), and 70(Hamilton). 김동영 옮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p.61-68, 312-319, 416-423.

12) Heater, D., *op. cit.*, pp.182-310.

계 속에서 형성되며,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주변화될 때 그들의 정체성도 훼손된다고 보았다.¹⁴⁾ 이는 정체성이 단순한 자기 표시가 아니라 권력과 담론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개념임을 시사한다.

한편, 미드(G. H. Mead)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를 강조하였고,¹⁵⁾ 쿨리(C. H. Cooley)는 ‘거울 자아(looking-glass self)’를 통해 타인의 시선이 자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¹⁶⁾ 타지펠(H. Tajfel)과 터너(J. C. Turner)의 사회정체성 이론은 집단 소속감과 가치 내면화를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다.¹⁷⁾

또한 후기 근대 정체성 이론에서는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프로젝트로 본다. 기든스(A. Giddens)는 후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자기 서사 프로젝트’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홀(S. Hall)과 카스텔(M. Castells), 바우만(Z. Bauman)은 세계화, 다문화주의, 디지털화 속에서 개인이 단일한 정체성 대신 다양한 소속과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¹⁸⁾ 이처럼 정체성은 첫째, 개인의 심리적 통합, 둘째, 사회적 인정 관계, 셋째, 담론·권력 구조, 넷째,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교차하는 의미가 녹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시민 정체성은 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② 공동체의 가치, 규범 및 역할에 대한 내면화된 이해, ③ 시민으로서의 참여(행위)와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적 자아를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한 국민 의식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치 지향·사회 참여 양식이 통합된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
- 13)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윤초희·정현천 옮김, 『정체성: 청소년과 위기』, 서울: 교육과학사, 2012, pp.32-34.
- 14) Taylor, C.,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25-30, 39-41.
- 15)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135-328.
- 16) Cooley, C. H.,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Sagwan Press, 2018, pp.168-210.
- 17) Tajfel, H. and Turner, J. C.,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1979, pp.33-47.
- 18)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1.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1997, pp.142-151.; Hall, S., “Who Needs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pp.1-17.; Castells, M.,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7, pp.1-3, 6-11.; Bauman, Z.,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13, pp.83-90.

3) 시민 정체성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탐구의 필요성

시민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선과 인권, 법치, 책임과 같은 규범을 내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참여 행위를 선택하는 심리적·사회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시민권을 넘어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자아 인식과 실천 양식을 포괄한다.

첫째, 시민 정체성은 규범과 경험을 매개하는 개념이다. 시민성 이론이 제시하는 공화주의·자유주의·세계시민주의 가치들은 시민 정체성 형성의 방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는 민주화, 세대 갈등, 다문화·이주, 분단과 평화 등 한국 사회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구성된다.¹⁹⁾

둘째, 시민 정체성은 인지·정서·행동 차원의 통합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페트로프스카(I. Petrovska)는 시민 정체성을 이 세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시민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태도화하며 행동에 옮기는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 제시한다.²⁰⁾ 이러한 유형화는 교육과 정책 설계의 목표 설정하는 데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셋째, 시민 정체성 연구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조주현은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 정체성 형성 과정을 강조하며, 시민교육이 단순한 가치 전달을 넘어 ‘어떤 시민적 정체성을 길러낼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²¹⁾

이상에서 시민 정체성은 개인적 자아와 공동체 소속감의 통합적 자각, 민주적 가치에 대한 윤리적 헌신, 사회적 책임 수행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육을 국가와 민족에 경도된 통합 담론에서 시민의 상호 인식·책임·공존의 학습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2. 시민 정체성의 핵심 특성

시민 정체성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식·가치·행위가 통합된 관계적·과정적 구조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 시민 정체성을 구분하는 핵심 구조적 특성으로서 행위 규정성(agency), 다양성(diversity), 변화성(plasticity)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통일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을 분석할 이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9) 이종렬, 앞의 논문, pp.171-172.

20) Petrovska, I., “Peculiarities of Various Types of Civic Identity,” *Journal of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10(2), 2019, pp.43-46.

21) 조주현, “공화주의 시민성과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4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pp.74-83.

1) 행위 규정성

행위 규정성은 시민 정체성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는 자기 규정적 속성을 의미한다. 공화주의 전통과 현대 시민교육 담론 모두 시민을 단순한 제도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도덕적 행위자로 이해한다.²²⁾ 웨스트하이머(J. Westheimer)와 카네(J. Kahne)는 시민성을 순응적, 참여적, 정의지향적 유형으로 구분하며, 뱅크스(J. A. Banks)는 참여, 책임 및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다.²³⁾

이를 통해 시민 정체성의 행위 규정성은 참여성, 책임성 및 윤리성의 세 요소로 체계화될 수 있다. 즉, 시민은 권리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행위로 실천하는 주체이며, 참여·책임·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 정체성이 형성된다.

〈표 1〉 시민 정체성의 행위 규정성

주요 학자	주요 논의	관련 요인
D. Heater	시민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위자이며,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윤리성·참여성
A. Etzioni	권리와 책임은 상호보완적이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다.	책임성
J. Westheimer & J. Kahne	시민성을 순응적·참여적·정의지향적 유형으로 구분하며, 민주사회 유지의 핵심은 참여와 정의 지향적 실천에 있다.	참여성·윤리성
J. A. Banks	시민성은 다양성과 공공성의 실천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으로, 참여·책임·윤리의 조화를 강조한다.	참여성·책임성·윤리성

* Heater(1990), Etzioni(1993), Westheimer & Kahne(2004), Banks(2004) 참고로 작성.

2) 다양성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단일한 가치나 동일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관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수의 자아와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층적 관계망을 통한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

헌팅턴(S. P. Huntington)은 개인이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중요성이 달

22) Pocock, J. G. A.,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박차섭 역, 『마키아벨리언 모멘트1, 2』, 서울: 나남, 2011.; Etzioni, A., *The Spirit of Community*, New York: Crown, 1993.

23) Westheimer, J. & Kahne, J., *op. cit.*, pp.244-245.; Banks, J. A.(a),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pp.18-22.

라진다고 보았고, 타지펠(H. Tajfel)과 터너(J. C. Turner)는 집단 간 상호작용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미드(G. H. Mead)의 상호작용론과 테일러(C. Taylor)와 파렉(B. Parekh)의 다문화주의 이론, 뱅크스(J. A. Banks)의 세계시민교육 역시 정체성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됨을 보여준다.²⁴⁾

이러한 논의는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이 다층성·관계적 상호성·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통합적 다양성(integrative diversity)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

주요 학자	주요 논의	관련 요인
S. P. Huntington	개인은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며, 각각의 중요성은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다층성
H. Tajfel & J. C. Turner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과 집단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관계적 상호성
G. H. Mead	자아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관계적 상호성
C. Taylor	‘인정의 정치’를 통해 타자와의 상호 존중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가치적 다양성
B. Parekh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다원적 시민성이 민주사회의 기반이다.	문화적 다양성
J. A. Banks	시민성은 다양성과 공공성을 포괄하는 복합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통합적 다양성

* Huntington(2004), Tajfel & Turner(1979), Mead(1970), Taylor(1994), Parekh(2000), Banks(2004) 참고로 작성.

3) 변화성

한편, 시민 정체성은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적 구조이다. 에릭슨(E. H. Erikson), 기든스(A. Giddens) 및 홀(S. Hall)은 정체성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후기 근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²⁵⁾

24) Huntington, S. P.,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형선호,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김영사, 2017, pp.41-43.; Tajfel, H. & Turner, J. C., *op. cit.*, pp.33-47.; Mead, G. H., *op. cit.*, pp.328-336, 354-378.; Taylor, C., *op. cit.*, pp.25-73.; Parekh, B., *Rethinking Multiculturalism*,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0.; Banks, J. A.(b), *op. cit.*, pp.136-137.

25) Erikson, E. H., *op. cit.*, pp.21-23.; Giddens, A., 권기돈 역, 앞의 책, pp.52-84.; Hall, S., *op. cit.*, pp.4-5.

세계화와 정보화 및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는 시민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공공의 가치와 책임의 확장을 요구한다. 누스바움(M. C. Nussbaum)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인류 공동체적 정체성을, 모스버거(K. Mossberger) 등과 돕슨(A. Dobson)은 디지털·생태적 시민성의 필요성을, 손경원·오고은·김현경 등은 다문화, 기술윤리 및 생태윤리 영역으로의 시민성 확장을 강조한다.²⁶⁾

이와 같은 시민 정체성의 변화성을 놓고 보면, 통일 시대에 시민교육이 유연한 정체성 학습(flexible identity learning)을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 시민 정체성의 변화성

주요 학자	주요 논의	관련 요인
E. H. Erikson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형성되는 자아 구조이다.	정체성의 변화성
A. Giddens	후기 현대사회에서 자아는 반성적 구성의 결과로, 정체성은 유동적이다.	정체성의 변화성
S. Hall	정체성은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위치이며, 고정되지 않은 과정이다.	정체성의 변화성
M. C. Nussbaum	시민 정체성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성
K. Mossberger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민 정체성이 형성된다.	디지털 시민성
A. Dobson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은 생태적 책임을 내면화해야 한다.	생태 시민성
손경원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과 다문화 정체성을 포괄하며, 도덕적 가치와 문화적 수용성이 핵심이다.	다문화·도덕적 시민성
오고은	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시민 정체성을 기술 윤리와 인간 존엄의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디지털 시민성·AI
김현경	생태 시민성은 공동체적 책임과 시민 덕성을 통합한 윤리적 시민성으로 발전해야 한다.	생태 시민성·공화주의

* Erikson(1968), Giddens(1991), Hall(1996), Nussbaum(1997), Mossberger et al.(2007), Dobson(2003), 손경원(2014), 오고은(2025), 김현경(2024) 참고로 작성.

26) Nussbaum, M. C.,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50-84.; Mossberger, K. et al., *Digital Citizenship*, MIT Press, 2007.; Dobson, A.,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손경원, “세계 시민성의 진단과 시민윤리 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44호, 2014, pp. 122-126, 139-140.; 김현경, “생태적 시민성의 개념과 공화주의 시민성 이론,” 『종교와 사회』, 12(1), 2024, pp.35-37, 41-43, 46-48.; 오고은, “AI 시대의 디지털 세계시민성,” 『사회과교육』, 64(3), 2025, pp.130-134, 147.

이처럼 시민 정체성의 세 특성은 시민이 ‘어떻게 행동하고’(행위 규정성), ‘어떤 맥락에서’(다양성), ‘어떤 변화 가능성을 갖고’(변화성) 시민으로 존재하는가를 규정한다. 이러한 논의는 III장에서 논의될 통일교육의 한계 분석과 그에 따른 IV장의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적 준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3. 시민 정체성의 유형

시민 정체성은 사회의 가치체계와 시민교육의 수준에 따라 도덕적, 민주적, 글로벌, 통합적 시민 정체성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시민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웨스트하이며(J. Westheimer)와 카네(J. Kahne)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성을 ‘개인적 책임 시민(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 ‘참여적 시민(participatory citizen)’, ‘정의지향적 시민(justice-oriented citizen)’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시민성의 성숙 단계와 실천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²⁷⁾ 히터(D. Heater)와 뱅크스(J. A. Banks) 또한 시민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시민성 유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네 가지 시민 정체성 유형과 대응된다. 즉, 도덕적 시민 정체성은 개인적 책임 시민, 민주적 시민 정체성은 참여적 시민, 통합적 시민 정체성은 정의지향적 시민과 각각 개념적 연속성을 지닌다.²⁸⁾

1) 시민 정체성의 주요 유형

시민 정체성의 네 가지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적 시민 정체성은 윤리적 자기 이해와 도덕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타인 배려와 공공선 실천을 중시한다. 콜비(A. Colby)와 데먼(W. Damon)은 이를 공동체적 도덕성에 헌신한 인격으로 설명하였다.²⁹⁾ 둘째, 민주적 시민 정체성은 권리와 책임, 참여와 숙의, 비판적 사고를 핵심으로 한다. 즉, 시민을 공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존재로 이해한다.³⁰⁾ 셋째, 글로벌 시민 정체성은 인류 공동체적 책임과 보편 윤리를

27) Westheimer, J. and Kahne, J., *op. cit.*, pp.240-245. 그리고 히터(D. Heater)와 뱅크스(J. A. Banks)도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

28) Heater, D., *op. cit.*, pp.182-208.; Banks, J. A.(a), *op. cit.*, pp.12-18.

29) Colby, A. and Damon, W.,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1992, pp.1-24.

30) 차윤정,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교양과목으로서의 열린사고와 표현의 특성과 교육방안,” 『한국민족문화』, 제79호, 한국민족문화학회, 2021, pp.133-156.

강조하는데, UNESCO는 이를 인권·평화·지속가능성의 학습으로 확장시켰다.³¹⁾ 넷째, 통합적 시민 정체성은 도덕적 시민의 윤리성, 민주적 시민의 참여성, 글로벌 시민의 연대성을 포괄하는 형태로서, 하버마스(J. Habermas)의 헌법적 시민성과 누스바움(M. C. Nussbaum)의 인류 공동체적 시민성 개념에 근거한다.³²⁾

이 네 가지 유형들은 상호 교차 내지 중첩되는 스펙트럼을 이루며, 사회 변화와 학습 경험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 결국 시민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수의 시민 정체성을 유연하게 형성하게 된다. 이는 통일 시대에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포용적 시민성의 단계적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다.

〈표 4〉 시민 정체성의 주요 유형

유형	핵심 특징	대표적 연구의 사례
도덕적 시민 정체성	윤리적 자기 이해와 도덕적 책임의식 기반, 타인 배려와 공공선 강조	Colby & Damon(1992)
민주적 시민정체성	권리·책임·참여·숙의 중심, 적극적 공적 참여	Westheimer & Kahne(2004)
글로벌 시민 정체성	인류 공동체적 책임, 다문화 이해, 글로벌 문제 참여	Nussbaum(1997), UNESCO (2015)
통합적 시민정체성	도덕적·민주적·글로벌 요소 통합, 포괄적 시민성	Habermas(1996)

* Colby & Damon(1992), Westheimer & Kahne(2004), Nussbaum(1997), UNESCO(2015), Habermas(1996) 참고로 작성.

2) 시민 정체성 유형의 교육적 함의

시민 정체성의 유형화는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교육 설계의 준거로서 이상적 시민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 목표와 학습 과정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웨스트하이머(J. Westheimer)와 카네(J. Kahne)의 ‘정의지향적 시민’ 모델은 참여와 비판, 실천 능력을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³³⁾ 둘째, 시민성 진단 지표로서, 참여 수준과 가치의 내면화, 사회적 책임의식을 측정하여 시민성 발달 단계를 분석할 수 있다. 허인숙·이정현·옥일남 등은 사회 참여와

31)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2015, pp.5-7.

32) Habermas, J., *op. cit.*, pp.127-131.; Nussbaum, M. C., *op. cit.*, pp.293-301.

33) Westheimer, J. & Kahne, J., *op. cit.*, pp.244-245.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³⁴⁾ 셋째,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시민 정체성은 개인, 사회, 국가 및 세계 공동체를 잇는 다층적 관계망을 형성함을 가리킨다. 이는 분단을 넘어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넷째, 시민 정체성은 사회 변화와 담론의 전환 속에서 재구성되는 개념이므로, 반성적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준다.³⁶⁾

이와 같은 시민 정체성의 세 속성과 네 가지 유형의 논의를 통해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론적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현행 통일교육은 이러한 시민 정체성의 핵심 원리인 행위 규정성, 다양성, 변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준거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Ⅲ. 시민 정체성에 근거한 통일교육의 비판과 재구조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 정체성은 행위 규정성, 다양성 및 변화성의 세 속성을 중심으로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통일교육의 한계는 단순히 내용이나 교수법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적 주체 형성의 원리가 통일교육 과정, 즉 목표·내용·방법·평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시민 정체성의 세 속성이 작동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이를 기준으로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 측면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이 시민 정체성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론적 필요성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민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

현행 통일교육의 체계는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체계의 네 요소로 구성되

34) 허인숙·이정현,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pp.443-472.; 옥일남, “시민성 교육을 위한 참여의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시민교육학회, 2017, pp.55-88.

35) UNESCO(2015), *op. cit.*, pp.5-7.

36) Hall, Stuart, *op. cit.*, pp.1-7.; Osler, A. and Hugh S., *Teacher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oke-on-Trent: Trentham Books, 2010, pp.15-30.

어 있다. 먼저,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유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중심 가치로 설정되어 있다.³⁷⁾ 이는 헌법적 가치의 강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시민이 스스로의 행위와 선택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행위 규정성의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³⁸⁾ 또한 여전히 국가 중심적 담론 속에서 시민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아가 통일교육이 단순한 가치·태도의 전달이 아니라, 시민이 통일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 기반 목표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북한 이해와 통일 필요성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세대·지역·계층·문화적 차이와 같은 시민의 실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 속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일 가치 중심 서사를 강화하여 학습자와 교육 내용 사이의 괴리를 초래한다.³⁹⁾ 다양한 관점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내용 구성은 시민이 통일을 하나의 ‘정답’이 아닌, 자신의 삶과 가치에 기반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강의·설명 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치우쳐 있으며, 토론·협력학습·프로젝트 학습 등 경험 기반 학습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교수·학습 방식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속성인 시민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⁴¹⁾ 따라서 통일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탐구·실천 중심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평가 체계 또한 지식 중심의 이해도 평가에 치우쳐 있으며, 학습자의 가치 성찰과 공동체 실천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가 미흡하다.⁴²⁾

37) 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교육원, 2023, pp.6-9.

38) 윤현경은 학교 통일교육의 체제가 법·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운영의 실체는 교사의 재량과 행정 지침에 좌우되고 학습자 주체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분석하였다(윤현경, “학교 통일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정책연구』, 38(3), 한국국가정책학회, 2024, pp.172-173.).

39) 엄현숙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정책 정보의 전달에 머물러 참여자 간 상호 이해와 다양성의 학습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엄현숙,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30(2), 세종연구소, 2024, pp.101-102.).

40) 통일부의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통일교육의 70% 이상이 강의형·영상 시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초중고 학생 42% “통일 필요 없다”...통일 인식 점점 낮아진다”, 『뉴스1』, 2025년 4월 4일,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42358>(검색일: 2025.10.02)]. 또한 이슬기는 이러한 교수·학습 구조가 통일교육을 정태적 지식 전달로 고착시켜, 정체성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이슬기,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연구』, 146, 한국윤리학회, 2024, pp.338-339.).

41) Hall, S., *op. cit.*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표 5>와 같이 이러한 통일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 정체성의 세 가지 특성인 행위 규정성, 다양성, 변화성의 관점에서 진단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은 시민 정체성의 행위 규정성·다양성·변화성을 교육체계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전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지식·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 정체성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⁴³⁾

<표 5> 시민 정체성의 속성과 통일교육의 구조적 문제

시민 정체성 속성	대응되는 통일교육 요소	구조적 문제	시민 정체성 관점의 진단
행위 규정성(행동을 통한 자기 구성)	교육 목표	국가 중심·체제 유지 지향, 학습자 주체성 부재	시민의 행위 규정성이 목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함
다양성(관계·가치의 다층성)	교육 내용	북한·안보 중심, 삶·가치·공동체 연계 부족	다층적 정체성과 공공적 관계망이 교육 내용에서 소거됨
변화성(맥락적 재형성·상호작용성)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주입식·경직된 수업 구조, 결과 중심 평가	상호작용적 학습이 배제되어 정체성의 변동성과 실천성이 억제됨

* 통일교육원(2023), 윤현경(2024), 엄현숙(2024), 이슬기(2024), 김병연·조정아(2020) 참고로 작성.

2.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논의

앞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의 한계는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구조의 문제이다. 이는 시민 정체성 형성 원리가 교육체계에 통합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은 시민 정체성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시민 정체성의 행위 규정성에 기반한 목표의 재구조화

시민 정체성의 행위 규정성은 시민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주체인 학습자가 통

42) 이에 대해서는 김병연·조정아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학교 통일교육의 평가가 주로 내용 숙지 수준에 국한되어 시민적 실천 역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병연·조정아, 앞의 논문, pp. 65-68.).

43) 차승주, “통일교육의 정치철학적 기초: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1(3), 한양대학교, 2024, pp.85-88, 104-106.

일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능동적 판단과 행위 및 실천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 이상 통일교육의 목표가 시민을 수동적 수혜자로 전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윤현경이 학습자가 통일과 평화를 스스로 기획·실행·성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을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⁴⁴⁾한 것과 함께,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시민이 공공선을 실천하는 존재로서, 행동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차승주의 주장⁴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행위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통합적 교육 내용

시민 정체성은 세대, 성별, 계층, 지역, 이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교차적으로 구성된다. 이에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문화·관점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다층적 관계 속에서 통합을 모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⁴⁶⁾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식조사에서 청년세대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에는 개방적이지만 통일문제에는 실용적 거리감을 보이는 반면, 중·장년층은 냉전기 국가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통일을 국가적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⁴⁷⁾ 또한 여성은 평화와 돌봄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성은 안보와 제도적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⁴⁸⁾ 이러한 세대·성별 간 인식 차이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세대별·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 및 계층 요인 역시 시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시민의 참여 기회와 공론장 접근성에 차이를 유발하며, 이념적 성향 또한 시민 인식의 주요 분화 축으로 작용한다. 진보적 시민은 평화와 인권 중심의 통일을, 보수적 시민은 체제 안정과 안보를 중시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토론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숙의적 공론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박찬석은 통일교육이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공공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념과

44) 윤현경, 앞의 논문, pp.174-176.

45) 차승주, 앞의 논문, pp.85-88, 104-106.

46) 그러나 김홍수·조수경은 윤석열 정부의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안보관 확립을 강조하면서 평화·공존·인권 중심의 시민적 가치가 약화된 점을 비판하였다(김홍수·조수경, 앞의 논문, pp.263-266.).

47) 통일연구원, 앞의 보고서, pp.25-28.

48)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앞의 보고서, pp.44-46.

세대, 지역의 관점을 반영한 다원적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⁴⁹⁾ 그리고 조은주는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성찰하며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려는 태도로, 청년세대의 정치적 행동에서 비판적 시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⁵⁰⁾

한편, 이춘호·임채완은 한국 사회의 시민 정체성이 다문화적·초국적 환경의 확산 속에서 기존의 단일 민족적 범주를 전제로 하기보다, 다양한 삶의 경로와 사회적 경험에 기반한 다층적·역동적 시민 정체성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이주와 같은 사회구성의 다양화는 시민을 규정하는 기준을 혈연적 동질성에서 가치와 경험의 다양성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본다.⁵¹⁾ 또한 추병완은 통일교육이 현실적 삶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다문화 등의 가치가 교과 간 통합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⁵²⁾ 이는 결국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이 통일교육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은 통일교육이 단일한 민족과 국가의 서사를 넘어 다양한 정체성과 맥락 및 경험을 포괄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체계의 전달이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평화공존과 협력을 학습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3) 시민 정체성의 변화성에 기초한 통합적 학습 방법

시민 정체성의 변화성은 개인이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통일교육도 정태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상호작용적 학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슬기는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대부분의 수업이 내용 전달과 가치 주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문제 해결형·토의형 수업과 협동학습, 성찰형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⁵³⁾ 또한 통일부(2025)의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8%가 참여형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교재·시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이러한 현실은 시민 정체성의 변화성과 상호작용성을 반영한 통합적 학

49) 박찬석,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평화안보통일교육,” 『초등도덕교육』, 9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5, pp.74-77.

50) 조은주,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와 비판적 시민성,” 『청년정책연구』, 12(1), 한국청년정책연구학회, 2020, pp.198-203.

51) 이춘호·임채완, “결혼이주여성의 다중정체성과 세력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8(4), 한국사회학회, 2014, p.93.

52)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제29호, 2009, pp.27-28.

53) 이슬기, 앞의 논문, pp.340-342.

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시민 정체성 기반 평가는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정서·행동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태도 변화 측정을 넘어 통일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지표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표 6〉 시민 정체성의 속성과 통일교육 학습 구조의 통합적 방향

시민 정체성 속성	통일교육 요소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	통합적 학습 방향
행위 규정성 (행동을 통한 자기 구성)	교육 목표·학습 구조	국가 중심 목표, 학습자 주체성 부재	참여·체험·실천 중심의 행위적 학습 구조 구축
다양성 (관계와 가치의 다층성)	교육 내용	북한·안보 중심, 가치·공동체 연계 부족	인권·평화·공존·다문화 등 다원적 내용 통합
변화성 (맥락적 재형성·상호작용성)	교수·학습 및 평가 체계	주입식 수업, 지식 중심 평가	상호작용적 학습, 과정 중심 성찰형 평가 도입

* 통일교육원(2023), 윤현경(2024), 김홍수·조수경(2024), 이슬기(2024), 정은미·박미희(2023) 참고로 작성.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은 행위 규정성·다양성·변화성의 세 속성을 통합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와 실천을 중심에 둔 통합적 학습체계(integrated civic learning system)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교육을 국가 주도의 가치 전달에서 시민 주체의 공동체적 학습과 평화 실천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다.⁵⁵⁾

IV. 시민 정체성 기반의 통일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

I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는 시민 정체성의 세 속성이 교육체계 전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재구조화는 단순한 내용 조정이나 프로그램 개선이 아니라, 시민 정체성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학습 환경 등 전반의 통합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민 정체성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의 이론적 원리, 통일시대 요구에

54) 통일교육원(2025),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25, pp.5-6.

55) 차승주, 앞의 논문, pp.110-111.

따른 시민 정체성의 확장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학습 생태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의 재구조화 원리

시민 정체성의 세 속성은 통일교육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핵심적 가치 원리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시민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행위 규정성, 다양성 및 변화성은 통일교육이 지식·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시민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조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재구조화 원리를 민주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원리에 대응시키고자 한다.

첫째, 행위 규정성의 교육적 구현으로서 민주성의 원리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행위 규정성은 시민이 공공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거트만(A. Gutmann)과 톰슨(D. Thompson)은 시민이 숙의(deliberation), 상호존중, 공적 이유 제시를 통해 공공적 결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⁵⁶⁾ 이 관점에서 통일교육은 숙의·토론 기반 참여학습,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 공공성·책임성 내면화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즉, 통일 주체인 학습자를 통일 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라 통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행위자로 양성하는 것이 민주성 원리의 핵심이 된다.

둘째, 다양성의 통합으로서 포용성의 원리이다. 시민 정체성의 다양성은 시민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구성함을 의미한다. 박순용은 한국 시민성이 단일 가치가 아니라 도덕성·참여성·다문화성이 상호 교차하는 다층적 구조라고 규정하였다.⁵⁷⁾ 킴리카(W. Kymlicka) 또한 현대 시민성을 다문화주의와 소수자 권리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시민교육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⁸⁾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포용성 원리는 세대·지역·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내용 구성, 차이·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민적 능력 강화, 북한이탈주민·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 집단을 포함하는 관점 확대를 요구한다. 이는 통일교육을 단일한 민족 서사 중심에서 다양한 시민의 정체성과 경험을 통합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핵심 원리가 될 것이다.

56) Gutmann, A. & Thompson, D., *op. cit.*

57) 박순용,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과 시민성 유형 연구,” 『시민교육연구』, 26(1), 한국시민교육학회, 2014, pp.73-90.

58) Kymlicka, W., *op. cit.*

셋째, 변화성의 교육적 실천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원리이다. 변화성은 시민 정체성이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및 세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적 가치가 재구성되는 동적 개념임을 의미한다. UNESCO(2023)는 세계시민교육이 평화·인권·생태·지속가능성 등 미래 가치의 통합을 통해 시민성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⁵⁹⁾ 또한 OECD의 자료에 의하면, 미래 시민이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자기 주도성, 공동체 참여, 윤리적 책임을 제시한다.⁶⁰⁾ 따라서 통일교육은 생태 및 기후 변화,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윤리 등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장기적 시민 역량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 통일 시대 시민 정체성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 사회의 시민 정체성은 다차원적이며 교차적인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통일은 제도적 통합을 넘어 시민이 통일문제를 자신의 일상, 경험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사회통합 과정이다. 이에 시민 정체성은 평화공존, 다문화 및 미래의 가치 체계와 결합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통일교육이 단일한 시민상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의 공존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학습적 통합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먼저, 평화·공존 중심 시민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과거의 국가주의적 시민성은 사회적 결속과 애국심을 강화했으나, 권위적 복종과 이념적 배타성을 내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육은 민주적 공공성의 가치로 거듭나야 한다. 차승주는 공화주의 시민교육이 시민의 공공선 실현 능력을 함양하며, 이는 시민이 도덕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⁶¹⁾ 정은미·박미희의 연구도 지역사회 중심 통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 상황과 사회적 차이를 평화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게 하며, 이는 시민의 공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⁶²⁾ 윤현경의 주장⁶³⁾처럼 통일교육이 참여형 수업을 통해 시민이 통일을 공공과제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학교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는 참여형 학습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비판적 시민성은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성찰하며 정

59)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at You Need to Know*, Paris: UNESCO, 2023, pp.12-17.

60)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 Concept Note Series*, Paris: OECD, 2019, pp.22-23.

61) 차승주, 앞의 논문, pp.85-88.

62) 정은미·박미희, 앞의 논문, pp.52-56.

63) 윤현경, 앞의 논문, pp.174-178.

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이슬기는 주어진 담론을 반성하고 새로운 통일의 의미를 구성하는 인식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⁶⁴⁾ 이는 통일교육이 분단체제의 이념적 편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국가 중심 통일에서 시민 중심 평화공존으로 시야를 확장하도록 이끌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처럼 통일 시대 시민성은 상호 이해, 갈등 조정,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평화 시민성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다층적 시민성의 확대이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 세대, 지역, 계층, 이념 성향,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배경의 중층·복합적 시민성의 교차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분단 시대를 넘어 통일 시대에는 남북한 지역의 주민이 통일 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기반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위한 자질과 역량도 지금보다 훨씬 고차적 수준에서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에 통일 이후 한국 사회는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이주민·다문화 배경 시민이 함께 구성되는 다층적 시민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⁶⁵⁾ 특히, 세계시민적 자질과 역량의 함양은 통일 이후 한반도가 직면할 다문화·다정체성 공존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뱅크스(J. A. Banks)는 세계시민교육을 ‘인류 공동체의 책임 학습’으로, 누스바움(M. C. Nussbaum)은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윤리적 시민성으로 정의한다.⁶⁶⁾ 통일교육이 이를 수용한다면, 통일은 단순한 민족 내부의 과제가 아닌 평화공존, 인권 및 지속가능성의 국제적 과제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관계적 시민성, 관점 다양성의 인정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미래 사회 변화와 확장된 시민성 교육이다. 디지털 시민성과 생태 시민성은 각각 정보화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책임과 윤리를 반영한다. 모스버거(K. Mossberger) 등은 디지털 시민성을 온라인 공론장의 참여 능력으로, 돕슨(A. Dobson)은 생태 시민성을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도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심오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서 정규 고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했다.⁶⁷⁾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OECD의 자료에서도 디지털·생태·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시민 역량의 주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⁶⁸⁾ 이 확장된 시

64) 이슬기, 앞의 논문, pp.340-343.

65) 구정화·박선웅,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한국 시민교육학회, 2011, pp.1-27.; 이춘호·임채완, 앞의 논문, pp.91-118.

66) Banks, J. A.(b), *op. cit.*, pp.138-139.; Nussbaum, M. C., *op. cit.*, pp.118-130.

67) Mossberger, K. et al., *op. cit.*; Dobson, A., *op. cit.*

68) OECD, *op. cit.*, pp.10-12.

민성은 통일교육을 이념 중심 교육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학습 체계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기술 윤리, 생태적 책임,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포함하는 확장된 미래 시민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 학습 생태계의 구축

시민 정체성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는 통일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 주체의 형성과 성장 및 참여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민 정체성 기반 통일교육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차원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및 디지털 공간을 연결하는 학습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강성주 외(KEDI)는 민주시민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학교·지역사회·시민사회·정책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즉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교육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보장한다고 분석하였다.⁶⁹⁾ 이는 통일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 학교는 통일교육의 일차적 수행 공간으로 숙의·토론 중심 수업,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평화·다문화·생태 가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⁷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통일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동체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사회 통일교육의 확대와 제도적 정착이 요구된다. 사회 통일교육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의 가치를 학습하려면, 지역사회, 대학, 언론 및 시민단체 간 거버넌스의 학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 생태계 구축의 의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는 갈등 사례 탐구,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다양한 시민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의 상호 이해와 공존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통일부와 교육부 등 중앙 부처를 포함하여 지자체, 시민사회,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통일 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반 생태계의 구축이다. UNESCO의 자료에 따르면⁷¹⁾ 디지털 환경은 시민학습의 핵심적 공간이며, 학습자가 지식·정보·공론장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장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세대·지역 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평화포럼·남북 청년 토론회 등은 시민이 직접 통일 담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온라인

69) 강성주 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KEDI), 2019, pp.121-128.

70) 예로서, 다문화교육과 학교 통일교육의 접점 모색 사례이다(추병완, 앞의 논문, pp.29-41.).

71)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at You Need to Know*, Paris: UNESCO, 2023, pp.14-17.

숙의 플랫폼, AI 기반 대화형 콘텐츠, 시민 참여형 디지털 공론장 등을 통해 학습자가 일상 속에서 평화·공존·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⁷²⁾

이상과 같이, 시민 정체성 기반의 통일교육은 행위 규정성, 다양성 및 변화성의 구조를 민주성과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의 원리로 통합하여,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제도를 재구조화하는 접근을 함의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이 향후 학교, 지역 등의 시민사회 및 디지털 환경을 연결하는 학습 생태계의 확장 및 구축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교육은 국민통합의 수단을 넘어 시민적 평화공동체 형성의 실천적 교육체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통일 시대 시민에게 요구되는 평화공존, 다문화 및 미래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는 통일 시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민주적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이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라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적 정체성 결여와 이로 인한 참여, 비판 및 책임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국가 중심의 통합과 민족의 동질성 확보 및 안보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공적 참여 역량을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한 채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 정체성의 관점을 통해 기존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재구조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민 정체성의 개념과 구성 원리를 검토한 후 행위 규정성, 다양성, 변화성의 세 가지 속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시민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하며, 공공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 정체성의 구조는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교육의 원리로서 민주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재정립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시민 정체성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72) 조정아 외는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 안정성과 결합될 때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하였다(조정아 외,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세종: 통일연구원, 2019, pp.65-68.).

국가와 민족 중심의 사고, 미래 사회 변화와 가치 및 역량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탈 주민·다문화·이주 배경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시민성의 미비, 민주적 상호 존중과 공적 책임의 취약성 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경험과 정체성 및 관점 차이의 반영 부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통일교육이 지식·정보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의 정체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세 가지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민주성 원리는 숙의와 토론 및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학습자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실천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원리이며, 포용성 원리는 다문화·다층적 시민성을 수용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는 교육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 원리는 기후 위기, 기술 혁신과 세계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일교육이 장기적으로 시민 역량을 확장 및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시민 정체성 기반의 통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차원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과 그 확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온라인의 디지털 환경을 연결하는 학습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숙의·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시민적 행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공존 역량을 확장하며, 디지털 환경은 지속 가능한 학습과 공론장의 확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통일교육이 일회적·단편적 학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학습 체계 및 구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을 국가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시민 중심의 평화공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민 정체성의 세 특성과 세 가지 교육의 원리, 그리고 학습 생태계 구축의 방향은 통일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 시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포용적·지속가능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에, 실증적 검증이나 현장 적용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민 정체성의 각 하위 요인들이 학습자의 통일 인식과 참여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세대·지역별 시민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통일교육 참여 태도와 학습 효과 분석, 둘째, 학교·지역사회·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공간에서의 시민 정체성 기반 학습의 실천 사례 비교 연구, 셋째, 평화, 인권, 세계시민교육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의 연계 모형 개발을 통한 통일교육의 실증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정화·박선웅,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한국시민교육학회, 2011, pp.1-27.
- 김병연·조정아, “학교 통일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FGI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67,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0, pp.43-73.
- 김홍수·조수경, “윤석열 정부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와 과제: 도덕과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71, 한국윤리교육학회, 2024, pp.255-278.
- 박보람, “주체적 시민성을 학습하는 시민교육,” 『초등도덕교육』, 7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pp.237-256.
- 박순용,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과 시민성 유형 연구,” 『시민교육연구』, 26(1), 한국시민교육학회, 2014, pp.73-90.
- 박찬석,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평화안보통일교육,” 『초등도덕교육』, 9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5, pp.57-83.
- 박형빈, “통일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제고: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21(2), 한국통일교육학회, 2024, pp.35-59.
- 엄현숙,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30(2), 세종연구소, 2024, pp.93-120.
- 오고은, “AI 시대의 디지털 세계시민성,” 『사회과교육』, 64(3), 2025, pp.129-156.
- 오덕열·강순원,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국제이해교육연구』, 16(1), 2021, pp.33-65.
- 옥일남, “시민성 교육을 위한 참여의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시민교육학회, 2017, pp.55-88.
- 윤현경, “학교 통일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정책연구』, 38(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4, pp.169-188.
- 이경희,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동북아연구』, 26(1),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1, pp.19-50.
- 이슬기,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연구』, 146, 한국윤리학회, 2024, pp.335-352.
- 이종렬, “‘정체성’의 정치와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41(2), 한국시민교육학회, 2009, pp.165-183.
- 이춘호·임채완, “결혼이주여성의 다중정체성과 세력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8(4), 한국사회학회, 2014, pp.91-118.
- 이한진, “건전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6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23, pp.197-232.
- 조은주,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와 비판적 시민성,” 『청년정책연구』, 12(1), 2020, pp.197-215.
- 조주현, “공화주의 시민성과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49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pp.65-94.
- 차승주, “통일교육의 정치철학적 기초: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1(3), 한양대학교, 2024, pp.85-112.
- 차윤정,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교양과목으로서의 열린사고와 표현의 특성과 교육방안,” 『한국민족문

- 화』, 제79호, 한국민족문화학회, 2021, pp.133-156.
-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제29호, 2009, pp.21-44.
- 허인숙·이정현,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pp.443-472.
- 강성주 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24.
- 조정아 외,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세종: 통일연구원, 2019.
- 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교육원, 2023.
- _____,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25.
-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Aristotle, *Politics*, trans. Rackham, 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Loeb Classical Library), 1932, 천병희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숲, 2017.
- Banks, J. A.(a),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 Bauman, Z.,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Castells, M.,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7.
- Colby, A. & Damon, W.,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1992.
- Cooley, C. H.,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Sagwan Press, 2018.
- Dobson, A.,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윤초희·정현천 옮김, 『정체성: 청소년과 위기』, 서울: 교육과학사, 2012.
- Etzioni, A., *The Spirit of Community: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tarian Agenda*, New York: Crown, 1993.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1.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1997.
- Gutmann, A. & Thompson, D.,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Habermas, J.,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 Hamilton, A., Madison, J., & Jay, J., *The Federalist Papers*, ed. I. Kramnick, New York: Penguin Classics, 1987 [1788], esp. Nos. 10(Madison), 51(Madison), and 70(Hamilton). 김동영 옮김, 『페더럴리스트 페이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Heater, D.,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New York): Longman, 1990.
- Huntington, S. P.,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형선호,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김영사,

2017.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Mossberger, K., Tolbert, C. J., & McNeal, R. S.,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Cambridge: MIT Press, 2007.
- Nussbaum, M. C.,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Osler, A. and Hugh, S., *Teacher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oke-on-Trent: Trentham Books, 2010.
- Parekh, B.,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0.
- Pocock, J. G. A.,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곽차섭 역, 『마키아벨리 언 모멘트1, 2』, 서울: 나남, 2011.
- Smith, A. D., *National Identity*, Reno & Las Vegas: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Banks, James A.(b),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2008, pp.129-139.
- Hall, Stuart, "Who Needs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pp.1-17.
- Petrovska, I., "Peculiarities of Various Types of Civic Identity," *Journal of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10(2), 2019, pp.43-54.
- Tajfel, H. & Turner, J. C.,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1979, pp.33-47.
- Taylor, C.,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25-73.
- Westheimer, J. & Kahne, J.,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004, pp.237-269.
-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 Concept Note Series*, Paris: OECD, 2019.
-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2015.
- _____,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at You Need to Know*, Paris: UNESCO, 2023.
- "초중고 학생 42% "통일 필요 없다"...통일 인식 점점 낮아진다", 『뉴스1』, 2025년 4월 4일.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42358>(검색일: 2025.10.2.)

【 Abstract 】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Civic Identity

Kim, Youngha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 enhancing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e concept of civic identity as a form of democratic citizenship. Civic identity is defined as an active form of identity that integrates a sense of community,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xercise of civic responsibility beyond legal citizenship. The existing framework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is constrained by its state-centered and transmission-oriented approach, which primarily focuses on understanding North Korea and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while lacking participatory, critical, and action-oriented dimensions.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that restructuring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core attributes of civic identity (agency, diversity, and plasticity) enhances learners' civic competencies. Such a framework enables them to grasp unification issues within personal and social contexts and to meaningfully exercise communal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e study proposes reconceptualizing unification education from a state-centered framework of national integration to a civic learning model designed to promote civic integ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hereby underscoring both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an educational transition grounded on democratic citizenship.

Key Words : Civic Identity,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Integrative Civic Identity, Unification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13일

